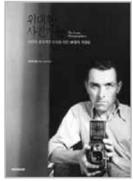


찰나의 순간을 예술로 남긴 38명의 거장들

위대한 사진가들

줄리엣 해킹 지음



모든 사람들의 손에 카메라가 들려있는 시대다. 스마트폰과 한 몸인 풀고기 눈만한 자그마한 렌즈를 통해 찰나의 순간을 누구나 담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디지털화된 이미지는 과거와 같은 필름 노광이나 암실 인화작업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보고, 지구 반대편 친구에게 빛의 속도로 보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좋은 사진에 대한 진지하고 민은 생각과 있다. 단지 찍고, 보고, 느낄 뿐이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 미국 사진가 앤서니 아담스(1902~1984)는 “네거티브 필름은 약보, 인화의 과정은 연주”라고 말했다. 사진을 음악에 비유한 그가 사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나온 ‘위대한 사진가들’은 19세기에 발명된 현대까지 180여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사진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든 38명의 거장을 소개한다. 사진 시대를 개척한 나다르(1820~1910)를 비롯해 ‘사진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오젠 앙제(1857~1927),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1909~2004), 보도사진의 전설적 인물 로버트 카파(1913~1954), ‘인간가족전’을 기획한 에드워드 스타이켄(1879~1973) 등 다채롭다.

또 ‘라이프’지(誌) 창간호 표지사진을



19세기에 발명된 사진술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만 레이 등 거장들을 만나며 예술로 승화됐다. 영국 패션 사진작가 노먼 파킨슨(1913~1990) 자화상.

장식한 마거릿 버크화이트(1904~1971) 외에도 줄리아 마거릿 캐머런(1815~1879), 다이안 아버스(1923~1971), 클로드 카엥(1894~1954), 한나 회흐(1889~1978) 등 사진사에 발자취를 남겼지만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여류 사진작가 7명도 눈에 띈다. 작가마다 독창적으로 찍은 자화상과 대표작품 1~2점을 함께 편집해 독자들이 사진을 통해 비범한 이미지를 창조해 낸 작가들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예술가는 19세기나 20세기에 태어났으며 자신의 주관성을 실체화하고 형태를 부여하는데 사진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며 “이 책의 의도는 독자들이 하여금 예술사와 관련해 전기(傳記)가 가지는 장점과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작가들의 생애 한 단면과 사진철학이 엿보인다. 작가 트루먼 커포티는 뉴올리언스 거리에서 3대의 라이카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작업하는

브레송의 모습을 “카메라는 그의 몸 일부처럼 보였으며, 그는 거의 종교적인 몰입 상태에서 강렬한 기쁨에 넘쳐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95세에 세상을 떠난 그의 주머니에는 랭보의 시집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사진작가는 “기계시대의 예술가”이다. 디지털 이미지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요즘, 이 책은 사진에 대해 한층 깊이 있는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시공아트·3만6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경솔한 여행자=‘SF소설의 선구자’ 르네 바르자벨의 작품. 전작 ‘대재난’의 중심 주제들을 이어받으면서 ‘시간 여행’을 핵심 테마로 삼은 이 소설은 오늘날 SF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타임패러독스’, 그중에서도 ‘할아버지 패러독스’를 최초로 다룬 작품이다. 소설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추운 겨울, 젊고 지적인 수학자 피에르 생드누가 우연히 노과학자 노엘 에사이옹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피에르는 ‘대재난’의 2052년을 거쳐 마침내 서기 10만년의 세계에 다다른다. 〈은행나무·1만3000원〉

▲나는 괜찮지 않다=독일 최고의 심리치료사 베르벨 바르데츠키가 독일 그로넨바흐 심인성질환 전문 병원에서 10여년간 각종 심리장애와 중독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임상사례 수천 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여자의 심리학’ 개정판. 나르시시즘 문제 중에서도 여성들만의 독특한 나르시시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책으로, 학계와 출판계에서 ‘여성적 나르시시즘’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와이즈베리·1만5000원〉

▲뫼든지, 호르몬!=일반인이 알아야 할 호르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호르몬은 무엇인지, 호르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부터, 호르몬은 생명체에서 어떤 진화적 근원을 갖고 발전해왔는지까지 의학적 지식은 물론 생물학과 진화의 발전과정까지 훑어볼 수 있다. 책의 핵심인 10가지 주요 호르몬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인체 내 50여개의 호르몬을 언급하면서, 호르몬이 인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해당 호르몬과 연결시켜 조목조목 짚어준다. 〈계단·1만3500원〉

어린이 책

▲책벌레=어느 도서관, 오래된 책들 사이에 사는 책벌레에 대한 이야기. 날지 못하는 책벌레는 나방, 하루살이, 파리 등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없었지만 외롭지만은 않았다. 도서관에는 재미있는 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동안은 하늘을 날아 보기도 하고, 먼 곳을 여행해 보기도 하고, 멋진 기사가 되어 어둠의 무리와 싸워 보기도 했다. 〈노랑상상·1만2000원〉

▲심해의 무법자=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리얼 동물 이야기-심해의 무법자 편. 바다 깊숙한 곳에 사는 동물들의 흥미진진한 생존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못생겼지만 온순한 불룩피시에서부터 작지만 어떤 바다 생물보다 치명적인 청자고둥, 이마에 초롱불을 달고 다니며 먹이를 유혹하는 초롱아귀 괴상하고 독특한 생명체 10종이 등장한다. 〈불나무·1만원〉

▲독립군 소녀 해주=이름은 없지만, 독립을 위해 애 쓴 우리 모두의 독립운동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적 폭력에 관한 책이다. 내 주변의 모든 정신적 폭력 유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가해자가 어떤 정신 구조에 따라 당신에게 공격을 시도하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한다. 정신적 폭력 행위가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과 가해자를 대하는 방법, 상황별 대처법도 함께 소개했다. 〈라이프앤·1만3000원〉

▲유에서 유=오은의 세 번째 시집. 오은의 시를 ‘오은의 시’답게 만드는 유쾌한 말놀이와 단어들이 제공하는 재미가 여전하다. 두번째 시집에서 드러났던 사회와 체계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의식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 시집 출간 이후 전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으며 시인은 그 사이 세월호와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 나라의 어둠에 대해 숨김없이 말해왔다. 이번 시집에는 그의 마음을 반영하는 시가 다수 수록됐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이야기. 독립운동은 돕는 대담한 머슴의 딸로 태어난 해주. 일장기를 든 게 왜 나쁜 일인지도 몰랐던 해주는 어느날 주인어른 대신 일본의 감시를 피해 독립군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첫 번째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

〈내인생의책·1만2000원〉
▲나의 작은 집=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모두의 집이 될 수 있는 작은 집에서, 정바사 아저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꿈을, 사진사 아저씨는 아프리카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은 꿈을, 모자 가게 청년들은 멋진 모자 패션쇼를 열고 싶은 꿈을 꾸다. 〈상수리·1만3000원〉

문학 정치 사랑 추억... 오르한 파묵의 삶을 물들인 다양한 색채

다른 색들

오르한 파묵 지음

한 사람의 삶을 물들이는 색채는 다채롭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터다. 오르한 파묵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색’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내 이름은 빨강’, ‘검은 책’ 등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오르한 파묵의 삶과 문학을 집대성한 에세이



양한 스펙트럼이 담겼다. 6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은 ‘삶과 근심’, ‘책과 독서’, ‘정치, 유럽 그리고 정체성 문제’, ‘나의 책’, ‘그림과 텍스트’, ‘다른 도시들, 다른 문명들’

등 모두 9부로 구성돼 있다.

오르한 파묵은 ‘눈’, ‘내 이름은 빨강’ 등 자신의 대표작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낸다. 특히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순수의 박물관’ 등 그의 작품의 영감의 원천 등에 대해 알 수 있어 흥미롭다.

또 저자는 ‘천일야화’, ‘몰리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악마의 시’ 등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에게 대한 개인 감상을 들려준다.

그밖에 유럽 내 터키의 현주소와 터키 국내 인권 현실, 정부 비판으로 인해 겪

은 소수, 대지진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사회적 문제점 등도 언급한다.

마지막 글은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문 ‘아버지의 여행 가방’이다.

1952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오르한 파묵은 건축을 공부하다 자퇴 후 글 쓰기에 매진했다. ‘검은책’으로 프랑수아즈 앙투아네트 상을 받았으며 2006년 ‘문화들간의 충돌과 얽힘을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했다’는 평을 받으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대표작 ‘순수박물관’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뤘으며 2012년 이스탄불에 실제 ‘순수박물관’을 개관했다.

〈민음사·2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전할뿐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한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